

# ‘인항’의 발자취



교무주임 이성일

인항인과 함께 호흡해 온 우리 학교가 1988년에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로 머지않아 제 1 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년식을 치르게 된다.

3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닌 ‘우리인항은, 이제 어릴적 콧물이 묻은 자국이 흉될 것은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밀거름 되어 온 결과이다.

이제 막 성년이 될 ‘인항’이 과거의 고통과 인내 속에서 묵묵하게 자라온 마당에, 인항인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인항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아 그들의 젊음을 대변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인항 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 I. 교사 채용의 민주적 절차

새로이 신설된 학교가 한 학년을 교육 과정대로 운영하려면, 10여 년 이상의 경력과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관을 지니고, 자기 회생을 감수하면서 학교 발전에 헌신하며 담당 학과는 물론 교무 행정에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6~7분과 적어도 10여 분의 교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립 학교는 설립시 재단측에서 교사 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재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대 교장이신 한성완 선생님은 인천에 근무하는 교사의 사정에는 밝지 못하여, 30여 년간 인천에서 근무하신 민병준 교감 선생님이 교직원 구성을 주관하게 되었다.

시내 사립 학교 교장 모임에 의하면 교사 임용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이 풍부하고, 각기 다른 과목을 전공한

6~7분의 실력 있는 교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교무 행정을 담당하기로 한 필자와 교감 선생님은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접촉을 시도한 결과, 새로운 명문고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을 초빙할 수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학교의 사전 양해 없이 초빙하게 되어 교장 선생님께서 항의를 받으신 적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7분의 교사를 모실 수 있었다.

1987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한 경력 교사의 임용이 끝나자 1988년 1월에는 신입 교사를 임용할 시간이 촉박하게 닥쳐 왔다. 임시로 교육 과정 운영표를 작성하고 시간 배정을 예상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결정하니 7분의 교사와 2분의 강사가 필요하였다.

1987년이라면 교육계가 안팎으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불행한 사태도 낳았던 과도기의 한 해였다. 그러나 인천 항운 노조 근로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피와 땀의 결정체인 인항고등학교가 개교함에 있어, 학교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교사가 더욱 필요하였다.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계신 교사와 접촉도 해 보고, 방학 중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도 연락을 취하여, 예비 교사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또한 투철한 분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신입 교사 임용 문제를 마무리지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16분의 교사가 구성된 것은 2월 중순이었다.

첫 해의 교사 임용은 좀 급박하였기에, 1989학년도는 시간을 두고 사전에 교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중순경에 유력한 일간지에 임용 공고를 하고 각 대학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수 있었다.

경력 교사 약간 명은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로 결정하였고, 신입 교사 임용은 출신 대학의 입학 당시의 해당 학과 합격 점수, 대학 4년간의 전체 성적, 고등학교 성적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학과별로 채용 인원의 3~5배수의 인원을 1차로 선발하였다. 2차에서는 재단의 이사로 구성된 면접을 거쳐 다시 2배수(실기 과목은 5배수 허용)로 축소하고, 3차는 기존의 교사를 학과별로 6~8명씩 배정하여 심사하는 현장 공개 수업을 통해 최종 선발하여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훌륭한 교사를 모실 수 있었다.

이 때에 어떠한 외부의 청탁도 거절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실제로 첫 해에 이사장님의 따님이 미대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를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청탁 배제 원칙을 들고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고 깨끗하게 철회되어 이후 교사 임용에 청탁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3차 심사에 임하는 교사



들도 훌륭한 교사를 선발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합산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므로 어느 특정인의 청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최종 결정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 발견되면 교사들의 반발 의식에 의해 불이익이 돌아가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7명의 교사를 임용할 수 있었고, 3차년도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18명의 교사가 새롭게 임용되어 총 51명(서무과 제외)의 교원이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학급의 증가에 의해 2년간 8~9명의 교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II. 사무 분장의 민주적 절차

1988년 2월 3일은 '제 1 회 인항인'을 배정 받는 날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외벽과 내부 바닥을 갈아내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외부에 설치한 받침대마저도 철거하지 못한 교사, 운동장은 정지 작업이 채 끝나지 않아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아직 학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학교의 위치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교통편도 매우 불편하여 버스에서 내려 10여분 이상을 걸어 들어와야 했다. 정비가 되지 않은 도로를 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헤치며 걸어온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아마도 불신과 불안한 심정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시내 중학교에 우리 학교의 위치를 알리고, 학교 버스를 동원하여 공설 운동장에서 학교까지 몇 차례 실어 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 용현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별로 소집시켜 안내문을 배부하고, 적십자인천 지사의 소강당을 빌려 학교 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공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였으니,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여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느냐, 교사의 실력과 자질을 어떻게 믿고 이 학교에 자식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느냐, 앞으로 학생들에게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게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불만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시설을 갖추고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교감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과, 최선을 다해 성의껏 학생을 지도하여 3년 후에는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겠다는 교사들의 자신 있는 결의와 약속으로 학부모의 불만과 항의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보다 먼저 개교한 신설 인문 고등학교들이 모두

주는 시련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학교를 정비하여 학생과 학부형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놓아야만 했다. 공정하게 엄선된 16명의 우리 교사들은 오기로라도 매우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서별 주임과 학년 주임을 선정하고, 8명의 학급 담임과 부담임을 배정하였으나 인원은 적고 담당해야 될 사무는 많아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사무를 맡을 수 밖에 없었다.

모든 행정 사무는 주임 교사가 책임지고 기안에서 종결까지를 처리하고, 신입 교사들의 미비한 점도 도와주면서 정리되지 않은 서류, 양식 등을 준비하느라 개교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 버렸다. 그러나 새 학교에 새 기틀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으로 다른 학교의 운영상의 장점을 도입하고, 교육위원회의 장학 지도를 받으면서 반성할 부분은 처음부터 협의를 거쳐 분석·수정하여 운영하였다.

매주 토요일은 교장 선생님과 주임 교사들이 교장실에 모여 일주일을 반성하고 다음 주의 계획을 세우는 한편,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급 회의의 건의 사항도 참고하여 교무 회의 시간에 공개 전달하고, 월말에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그 달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해 교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교 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Ⅲ.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들

학교 건물의 완공과 기자재의 확보, 그리고 방송 시설, 식당, 공중 전화 등이 갖추어지자 이제는 학교 주변 환경을 가꾸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일요일을 택하여 향운 노조 훈련원 30여 명과 향운 노조의 차량을 지원 받아, 파주군 광탄면의 광탄종합고등학교 이사장님이 기증해 주신 6~10년생 200여 그루의 나무를 전 교사가 파주까지 가서 두 차례에 걸쳐 옮겨 심고, 정우상호신용금고에서 기증한 서구 경서동에 있는 150여 그루의 나무를 학교 울타리 주변에 옮겨 심어 학교를 푸르고 산뜻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운명은 학력 향상에 있다. 3년 후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별 학급 편성 및 무감독 시험 제도까지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성적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8학급을 편성하였다. 수업 시간은 교육 과정상 주당 34단위가 배정되었지만 애국 조회, 특별 활동, 학급 회의



를 포함하여 37시간 외에, 국·영·수를 한 시간 더 배정하여 40시간을 운영하고, 아침 보충 수업 한 시간과 저녁 자율 학습 두 시간을 학년 주임 책임하에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의 시간은 국·영·수에 대한 특별 보충 수업이 두 시간 실시 되었는데, 이는 학원 수강이 금지된 당시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있었지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었다.

그 이외에도 장거리 통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합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습실과 기술실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보다 많은 학생을 특별 수업에 참가시키고 기숙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교사와 시설의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쉬웠던 일이다.

개교식 때에 KBS에서 특별 취재하여 학교 소식을 방영하였고, 인천신문에서도 상세한 학교 소개를 해 주었으며, 선생님들의 정성과 학생들의 열의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다. 특히, 전 교사와 학생이 참가한 극기 훈련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었고, 학급 회의와 특별 활동을 통하여 한 뜻으로 뭉칠 수가 있었다. 또한, 각 학급들은 일요일을 이용하여 등산, 낚시, 수영 등의 단합 대회를 통하여 그 뜻을 더욱 다질 수가 있었다.

학교 육성회 및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긴밀한 협조와 연락은 물론 학부모의 건의를 수용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개교 당시의 불신감과 불안을 빠른 시간에 해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외부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중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타학교에서는 좀처럼 실시하기 어려운 장학생 제도를 해마다 확대하여 현재 5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위한 좋은 제도라면 이처럼 최대한 수용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제 실내체육관만 건립된다면 명문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에 걸친 인항의 발자취를 간추려 보았다. 이처럼 인항은 자신과 학생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인항의 미래는 인천 최고의 명문 학교로 부상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끝으로 제 1기 졸업생 여러분과 재학생들의 끊임 없는 비판과 격려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